

## JTN신문방송 제4대 이사장 허창범 목사 취임

부이사장 부총재 박정균 목사, 대표회장 곽영민 목사 등 추대, 다수 사령



JTNTV 신문방송 지저스타임즈(사장 소진우 목사)는 지난 3월 29일(목) 오전 11시 대전시 서구 갈마동 소재 번성교회 본당에서 열린 이사장 취임식에서 허창범 목사(푸른솔교회)가 제4대 이사장 및 한국기독교언론부흥사협의회 제2대 총재로 추대되어 취임감사예배를 드

렸다. 본 언론사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에 상임이사 신언창 목사(웨신 부총회장)의 기도, 총무국장 백은성 목사(안산임나무엘교회)의 성경(겔 33:1~7)봉독에 이어 꾸미오리 기독무용단(김창숙 목사)의 몸 찬양, 돌로스153찬양선교단장 유동술 목사의 찬양, 찬양사역자 김미라 목사(주찬양교회)가 각각 축하 찬양과 무용으로 영광을 돌려드렸다. 제4대 이사장 허창범 목사(웨신총회 총회장)는 취임에 앞서 겔 33:1-7절을 중심해서 "시대의 파수꾼"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파수꾼이란 경계하며 지키는 일을 성실하게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라고 했다. 이처럼 기독언론 신문방송은 시공을 초월하고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의 진리를 파수하는 역할을 다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 이사장은 파수

꾼의 역할은 나팔을 잘 부는 것이라고 했다. 즉 진리를 바로 전달하는데 있으며,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있다고 했다. (http://jmntv.kr)참조... 이어 상임이사 김선우 목사(주사랑교회)의 봉헌기도 후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취임식에서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허창범 목사(웨신 총회장)를 신임이사장 및 한국기독교언론부흥사협의회 총재로 추대하고 취임 축하 패를 증정했다. 이어 이사장 및 총재 허창범 목사는 부이사장 및 부총재 박정균 목사, 명예이사장 및 지문으로 이영종 목사, 사무총장 겸 언론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곽영민 목사, 수석상임이사 및 언론부흥 부총재 오종설 목사 등을 추대하고 취임축하패를 증정했다. 따라서 이흥규 목사(지구촌교회)를 자문 및 기독언론부흥사협의회 지도위원, 이희희 목사(축복받은교회)를 자문 및 언론부흥 연수원장,

박수영 목사(대구지사장/행복샘교회)를 부사장 및 언론부흥 수석상임회장, 신언창 목사(웨신 부총회장)를 상임이사 및 언론부흥 상임회장, 조영만 목사(인천시문교회)를 상임이사 및 언론부흥 감사단장, 임용선 목사(나주뽕엘교회)를 논설위원 및 언론부흥 상임회장, 김부경 목사(방송선교교회)를 상임이사 및 언론부흥 회계, 김선우 목사(주사랑교회)를 상임이사 및 언론부흥 실무회장, 이선한 목사(영광교회)를 상임이사 및 언론부흥 부회장, 윤재섭 목사(광주중앙교회)를 운영이사 및 언론부흥 실무회장, 김지연 목사(성진교회)를 총무이사 및 언론부흥 실무회장, 김정옥 목사(성남중앙교회)를 취재 기자 및 언론부흥 실무회장, 정사라 목사(삼감교회)를 언론부흥사협의회 공동회장으로 각각 사령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날 신임이사장 및 언론부흥 총재 허창범 목사, 언론부흥 대표회장 및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의 취임사가



이어지고, 웨신총동문회장 박철규 목사, 한총연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총기총 직전 대표회장 오종설 목사가 축사를, 이영종 목사(웨신 직전 총회장), 이흥규 목사(웨신 중경총회장)가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언론부흥 상임대표회장)는 인사 및 내빈 소개를 통해 신문방송은 여러 이사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성립해 왔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이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주문했다. 대표회장 및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의 광고에 이어 이사장 및 총재 허창범 목사(푸른솔교회)의 축도가 있던 후 부이사장 박정균 목사와 번성교회가 제공한 풍성한 점심을 대하며 교제를 나누었다. 한편 대표회장 허창범 목사는 첫 번째 이사회를 개최하고 JTNTV

신문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 문서선교 활성을 위하여 적극 지원을 다짐했다. 지저스타임즈 JTNTV 인터넷(www.jmntv.kr)방송은 목회자들이 구성된 28개 국내지사가 있으며, 이미 MOU를 체결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방송신문 4개사와 선교사들로 구성된 필리핀, 치앙마이, 아틀란타 지역 등 해외 지사 35 곳에서 좋은 소식과 뉴스를 교환하고 있다.

## 2018년도 목회지도자교육원(AMP) 졸업식 가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정인찬 박사) 목회지도자교

육원(AMP, 원장 김경식 박사)은 지난 3월 23일(금) 오전 11시 본교 2층 대강당에서 졸업생, 교수, 축하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졸업식을 가졌다. 김경식 원장의 인도로 시작된 졸업식은 직전 원장 권문상 교수의 기도, 기획처장 김선일 교수의 성경봉독(엡 4장13-16)과 졸업생 김춘욱 목사 외 5명의 특송 후 총장 정인찬 목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의 설교와 축도로 졸업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졸업증 및 수료증 수여식에서 김경식 원장의 학사보고를 통해 본 졸업식을 통해 ▲목회연구원 과정 박종만 외 39명이 졸업을 김영조 학생이 수료를 ▲살전신학연

구원과정 박정균 외 25명과 ▲프리미엄과정 조정훈 외 32명 등 총 96명이 졸업하였음을 보고한 후 정인찬 총장의 졸업축 수여가 있었다. 이날 졸업생 박종만 목사, 나요한 목사, 박정균 목사가 총장상을 장한 목사, 김춘욱 목사, 신예은 목사가 원장상을 나누었 목사, 한인수 목사, 김재숙 목사가 모범상을 이장해 목사, 곽영주 목사, 문혜순 목사가 봉사상을 이종현 목사, 신준수 목사, 손정혜 목사가 동문회장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이어서 화광교회 윤호근 목사가 축사를, 동문회장 박철규 목사가 격려사를, 총장 정인찬 목사가 인사의 말씀이 있는 후 장려한 본부장이 광고하고 다같이 기념촬영하는 것

으로 졸업식을 마쳤다. 이날 졸업생 문혜순 전도사는 복음 전도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학과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SQ진로프로그램을 접목한 전도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고 소개하였다. 문전도사는 SQ진로프로그램이 현재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유일한 전략이라 생각되어 매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전문감사 과정을 수료하였고 성남지부 설립 등 졸업 후 진로에 대한 포부와 함께 현재 SQ진로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교 123개가 이미 교육신청을 마쳤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소개하였다. 졸업준비위원장인 박종만 목사



는 웨신총회 총회장 허창범 목사님이 졸업축하 화환을 보내 왔음과 한서노회와 호남노회의 재정지원으로 졸업생 전원에게 꽃다발을 선물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학교와 총회가 우호 협력적인 관계로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표했

다. 목회지도자 전 과정을 이수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고 또 이루어갈 졸업생들은 하나님의 더 많은 영광을 드러내며 사랑을 사랑으로 섬기는 지도자로 세상을 향해 합치게 출발하였다.

©취재부 김정옥 기자  
yy1647@empas.com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2018년도 총회 강도사 2차 고시(공고)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 웨신총회는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으로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교계의 표준 웨신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을 바탕으로 설립된 미국 웨스트민스터 비브리칼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 Robert S. Rapp(라보도) 박사와 김달생 박사가 1967년 서울 흑석동에 설립한 신학교(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총회를 창립하였다. 현재는 종교개혁을 통해 확인된 성경 중심의 신학과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삶을 실천하고 가르치기로 서약하는 모든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가진 목회자들과 함께 교계의 표준총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교단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총연합회 원 교단으로 연합과 화합에 협력하고 있다.

### 총회 비전 선언문

21세기에 전개될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과 비전을 성경적 바른 신앙과 신학의 역동성으로 실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지평을 열어가며 민족과 열방을 섬긴다. 웨신총회는 교권주의 정치와 WCC 종교혼합, 다원주의를 배격하고 한국교회의 위상과 삶을 통한 거룩성을 회복하며 교계의 연합과 화합에 협력한다.

목사 안수 및 교단 가입 문의 : 010-8602-3009  
**총회장 허창범 목사 (신학박사, 교육학박사)**

1. 고시일시	주후 2018년 4월 26일(목) 오전 11시
2. 고시장소	총회본부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172 (3층), ☎02-835-2606-7 FAX02-835-2608
3. 고시과목	(1)필기고사 : 조직신학 · 교회사 · 헌법 (2)논문제출 : 제목 : 목사의 소명과 사역 (분량은 A4용지 10매 이상) (3)설교실기 : 본문 : 요3:16,(3-5분 실제 설교를 하며, 설교문은 사전 제출) (4)면접고사 : 반드시 정장 착용
4. 응시자격	웨신대 M.Div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본 총회 인준 신학교 졸업자, 본 총회가 인정하는 대학원 또는 연구원 졸업자, 또는 본 총회가 인정하는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5. 고시전형료	30만원 / 입금계좌 : 우체국 013821-01-002737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6. 고시청원서 배부 및 접수	*배부 및 접수처: 총회본부 *배부 및 접수기간: 2018년 4월 13일까지 *고시 청원서는 총회 사무처에서 교부받거나, 총회 홈페이지(http://ws21.org)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 홈페이지 자료실 총회서식 강도사 고시 청원서) 고시부장 오성열 목사 고시부 서기 김영환 목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총회 사무처와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 02-835-2607 ▶총무: 010-2812-1746  
총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172 (3층), ☎02-835-2606-7 http://ws21.org

부활절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 메시지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

한기보협 2018 부활절 메시지
할렐루야! 사랑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님의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한국과 온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생명의 열매로 가득한 역사, 부활의 기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으며,
영원한 형벌로 인해 지옥으로 곧두박질 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셨으며 그곳에서 양손과
양팔에 망치를 든 병정들에게 대 못 박히시고 십자가
에 달리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죽으셨다가
장사하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
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회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불평등했던 장벽을
하고, 정치와 사회는 물론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화
합과 회복으로 하나가 되는데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보수교단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하
는데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18. 4. 1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할렐루야!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
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권
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열매가 되신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계
에 전하며, 모두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
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짐을 대신 지
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알지 못한
무지함이 그를 십자가로 내 몰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과 같이 값없이 오게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
랑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
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5-8)”
구원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
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되고, 모든 허물과 명에는 벗겨진 것입니다. 마
땅히 섬김 받으실 분이 종과 같이 낮아져 섬기신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먼저 길을 내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예수님은
낮아지는 자리, 섬기는 자리를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의 삶에서 빛나간 모습이 있
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
역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나타나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길을 따라 말씀에 순종
하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됩시다.

2018. 4. 1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사랑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의 은혜와 평강이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
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땅
의 다름과 갈등, 탄식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 완전한 ‘shalom’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
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드러온 회장을 찢으신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불평등과 장애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정치와 이념과 사상으로 인한 차별과 혐오, 배타주의에서 벗
어나 이 땅에 참 평화가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남과 북이 무력 대결이 아닌 대화와 교류로 화해와
용서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을 주님이 친히 걷
어내사 북핵이 완전 폐기되고 민족의 영원인 평화 통일의 날
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의와 불법, 권력에 의한 억압
과 성적 착취, 인권 유린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보수와 진보, 여와 야가 소악 대립
과 반목이 아닌 통 큰 협력과 상생의 정치로 국민 통합을 이
루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인 우리들이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
고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이 피 값으로 주신 생명의 위대한 능력을 매일 매일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자만과 성장주의에 도취해 저지른 분열의
죄책을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오늘의 위기를 새로
운 희망으로 바꾸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듯이
한국교회가 오늘의 고난을 거름삼아 다시 일어서서 부흥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선포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증
거하는 일에 매진하는 제자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안산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최현규 목사

할렐루야! 죄와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
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절연합예배에 참
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
합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안산의 1,000여 교회가 하나 되
어 와~스타디움에서 부활절연합예배로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
의 은혜이며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시민들의 적극
적인 협력으로 가능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
을 돌리며 협력해주시는 중재회장님들과 임원역들과 각 교단의
지도자(노회장, 지방회장, 감리사)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안산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산의 기독교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기쁨
으로 소망이 가득한 안산시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
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승리입니
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 세월호의 유가족들과 안산시민들이 부활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위에 세우는 일에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안산에 거주하는 97개국의 이주민들과 안산시민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안산시가 행복한 도시,
소망이 가득한 도시, 거룩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한국을 새롭게
하는 건강한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북이 통일되고 세
계 평화에 기여하는 부활의 증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죄와 사
망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며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진리의 복음
을 전하십시오.

금번 연합예배에 말씀을 선포해준 장영동 목사님과 순서를 맡
아 섬겨주시는 모든 목사님과 찬양대원, 안내위원, 헌금위원, 물
심양면으로 협력해주시는 모든 교회와 업체들, 그리고 안산시와 안
산시장, 시의회의원, 그리고 내빈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4월 1일 부활절

안산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최현규 목사
안산에서 백운성 기자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하창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pi@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섬김은 헌신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해돋는교회 표성영 목사 초청 헌신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
상을 섬기는 해돋는교회(담임 표성영 목사)
는 지난주간 표성영 목사(양촌성결교회 담
임)를 초청해 남전도회 헌신예배를 드렸다.
회장 조진호 집사(남전도회)의 인도로 시작
된 헌신예배에서 김창훈 장로가 대표기도를
한 후, 표성영 목사가 ‘섬김’(막 10:43-45)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표 목사는 “예수께서는 자기의 왕국은 겸
손과 섬김으로써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제
자들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결국 예수께서는
대속적 희생물이 되어 세상 사람들을 섬김
으로써 이를 실천해 보이셨다. 세속적 질서
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은 높은 지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

른 사람을 얼마나 섬겼는가에 의해서 평가
된다”며 “첫째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자.
둘째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자. 내가 누구인데 하지 말고 먼저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 때 가능하다. 셋째, 섬
김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된다.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가정 안에서도 섬기
는 자가 되자”고 말한 뒤, 축도함으로 헌신
예배를 마쳤다.

크리스천비전 이정현 기자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2018년도 전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회지도자전문과정 입학안내
\*특전
1. 총장명의 증서
2. 장학혜택(성적 및 공로자)
3. 연세총신 신대원 2년과정으로 인정함
4. 연세총신과 연계교육후 연세총회에서 목사안수함
\*입학안내
•모집기간 / 2018년 1월 ~ 3월
•개강일 / 2018년 3월 8일(목) 오전 10시(주간) 오후 6시(야간)
•교육대상 / 평신도지도자반: 세계교인 이상
교역자반: 신학생, 전도사, 강도사 목사(사모)
•교육기간 / 평신도지도자반: 2년 4학기
교역자반: 2년 4학기(단, 목사는 1년 2학기)
•교육시간 / 주간: 매주 목 (오전10:00-오후3:00)
야간: 매주 목 (오후6:00-오후9:30)
•교육비용 / 45만원
•등록안내 / 국민은행 220401-04-015162
(예금주/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진 / 김영욱 총장의 과목별 유명 전문강사
•제출서류 / 입학원서, 증명사진2매,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장소 / 인천분원 (학기2회/본교에서 강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19(진영빌딩2층)
(인천시청후문, 인천시청 지하철3번출구 20미터)
•접수처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지원팀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인천분원/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119(진영빌딩 201호)
•문의처 / 교학지원팀: 031-770-7822~3
팩스) 031-770-7828
분원사무국: 070-7518-0651, 010-3641-0685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표어: 좋은인남 행복만성도(신 33:29절)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성성경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차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최병욱: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류정호: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김소영: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도 고침받음
\* 남영수: 재정불량성민회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김영자: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박수영: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강복희: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김복자: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순\*배\*시\*간\*안\*내\*순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우)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처치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 43:19)
\* 視務牧師 서명범 \* 同事牧師 지복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010-8268-0091, 010-3710-9119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주일 2부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담임 목사 곽완근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010-4320-1507



■ 靑松 건강칼럼 (630) 수면(睡眠)의 날

숙면(熟眠) vs 불면(不眠)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인생의 3분의 1을 바꾸면 나머지 3분의 2도 움직인다.” 인간의 순수 수면시간은 일생동안 평균 26년 정도 있다고 한다. 수면(잠)은 인생의 1/3을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수면은 어렵고 힘든 과제이다. 불면증(不眠症)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수면제(睡眠劑)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면이 단순히 하룻밤 적게 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족한 잠이 ‘빛’처럼 몸에 쌓여 수면부족(睡眠負債)로 작용한다.

즉, 수면 부족의 축적은 반드시 깊어야 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인 빛과 같이 ‘수면 빚(sleep debt)’으로 인한 졸음은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같은 시간 동안 ‘눕는 것’보다 ‘자지 않는 것’이 더 죽을 위험이 높다. 만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생활이 지속되면 뇌(腦)에 노폐물이 누적되기 때문에 면역력(免疫力)에 관계된 기관의 활동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이러스, 세균 감염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된다.

영국에서 잡지 ‘Idle(게으름뱅이)’를 발행하는 톰 호지킨슨(Tom Hodgekinson)은 2005년에 출간한 그의 저서 <How To Be Idle(게으름을 떳떳하게 즐기는 법)>에서 “잠이야말로 인생을 살며 누리는 가장 중요한 기쁨 가운데 하나이자, 슬픔을 이기게 해주는 좋은 친구이며, 창의적 생산성의 원천이므로 덜 일하고 더 많이 자라”고 권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6년 조사에서 한국인의 평균 수면(睡眠) 시간이 쪼렷으로 나타났다. 즉,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인 8시간 22분보다 41분이 나 짧은 7시간 41분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그보다 1시간 30분 이상 더 줄어 6시간 6분을 자는 것으로 조사됐다. 순수 수면시간이란 그냥 눈 감고 뒤척거리면서 정신이 있는 시간을 제외한 뇌파(腦波)가 완전히

수면 상태의 뇌파를 발생시켜야 한다.

한편 로열필립스 글로벌인상연구소가 2015년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한국인 500명을 비롯해 총 10개국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면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담은 ‘수면에 대한 세계의 시각’에 따르면, 한국은 응답자의 43%가 ‘일에 대한 걱정이 수면을 방해 한다’고 답해 조사대상 10개국 중 가장 높았다. 쉴 틈 없이 일하고, 어찌다 쉬는 동안에도 ‘일’ 생각을 해야 하는 생활 탓에 우리 뇌는 피로한 상태가 된다. 한국 다음으로 브라질(33%), 중국(3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불면증(不眠症)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09년 30만 5,029명에서 2014년 48만

서 수면의 중요성과 건강한 수면을 위한 지침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자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수면학회(Korean Society of Sleep Medicine) 주최로 전국 각지의 병원 및 학교에서 3월 한 달 동안 ‘수면’ 관련 강연을 실시한다. 2018년 ‘수면의 날’ 슬로건은 ‘건강한 수면 리듬, 건강한 삶’(Join the Sleep World, Preserve Your Rhythms to Enjoy Life)이다. 즉, 건강한 생체 리듬과 그에 따르는 건강한 수면 리듬이 우리의 수면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슬로건이다.

올해의 슬로건은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다. 즉, 지난해 우리 몸의 생체리듬(하루주기 리

듬)를 담당하는 유전자를 발견한 미국의 Jeffrey C. Hall 교수(메인대), Michael Rosbash 교수(브라운대), Michael W. Young 교수(록펠러대) 등 과학자 3명이 공동수상했다. 사람의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일정한 움직이는 생체리듬을 갖고 있는데, 이를 생체시계(生物體時計, Biological Clock)라고 부른다. ‘하루주기리듬’ 또는 ‘일주기리듬’으로 불리는 생체리듬은 약 24시간의 주기를 가지고 수면과 각성(覺醒), 호르몬 분비, 신진대사, 체온 등의 중요한 신체 및 정신기능을 조절한다. 생체시계와 하루주기리듬은 우리 몸에 내인성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환경의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자극 중에 가장 중요한 자극이 빛(光)이다.

빛은 눈으로 들어와 망막(網膜)에서 생체시계로 신호가 전달되어 낮에는 생체시계의 활발한 활동을 도와주어 깨어있게 만들고, 빛이 없는 밤에는 생체시계가 비활동성이 되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밤에 빛이 들어오면 비활동성이던 생체시계가 활발해져서 각성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야간에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된다. 이는 야간에 밖에서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방에서 자면 잠이 방해되는 것과 낮에 잠을 자아하는 야간근무자들이 잠을 잘 못 자는 이유이다.

자신의 하루주기리듬과 생활 리듬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한 수면 및 숙면(熟眠)을 취하기 어려워 수면부족(睡眠不足)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성인의 권장 수면시간인 7-8시간 동안 자는 것을 게으름, 단순한 휴식 등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수면 시간을 줄여 ‘멍한 상태’로 오래 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좋은 업무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인간의 생체 리듬은 24.3시간 이므로 자연의 변동 주기인 24시간에 가깝다. 생체주기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는 일반형(정상형), 저녁형(지연형), 아침형(조기형)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생체주기는 뇌의 시상경 교차 상부핵의 유전자 양상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조절된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므로 생체 리듬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나이와 생체시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서 습관을 들이면 큰 부작용을 줄이면서 원하는 생체 주기를 만들 수도 있다.

잠든 직후 90분을 ‘수면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며, 이 때는 뇌의 내정상태 회로(default mode network: DMN)까지도 활동

멈춘다. 잠시간 깨어 있으면 ‘자고 싶다’라는 수면 욕구, 즉 수면 압력이 커지는데 첫 번째 논렘수면(nonREM sleep)에서 수면 압력의 대부분이 해소된다. 황금 수면시간 90분의 질을 높이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낮 시간의 졸음도 사라진다.

하루에 8시간 자고도 졸리는 사람과 6시간 자고도 기분이 개운한 사람의 차이는 수면을 결정짓는 황금시간 90분으로 결정된다. 황금 시간 90분은 체온과 뇌에 의해 결정된다. 밤에 질이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낮 동안 완벽하게 깨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 최적화된 조명과 환경, 숙면에 도움을 주는 침구류(寢具類) 등도 중요하다.

대한수면학회가 권장하는 <건강한 수면을 위한 생활지침>은 다음과 같다. ▲규칙적인 수면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한다. ▲주말에 지나치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피한다. 이러한 습관은 짧은 기간 동안 3-4시간의 시차(時差)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것과 같다. ▲규칙적인 생활과 함께 낮에는 밝은 빛을 쬐고, 야간에는 빛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나침 카페인 섭취와 음주를 삼가 한다. ▲낮에 졸려 낮잠을 자는 경우 30-40분 이하로 잔다. ▲저녁 늦게 밥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는 것은 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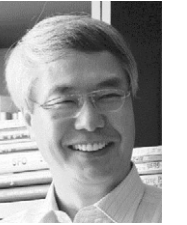
밤늦게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저녁에는 집안 조명을 지나치게 환하지 않게 유지하고 화장실의 조명도 작고 밝지 않은 것이 좋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시간에도 낮에 졸리거나 피곤하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는 ‘수면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5-6시간, 되도록 7-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해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잠이 보약” 즉, 좋은 잠이 건강한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박자 건강칼럼 -73- 섬유질 건강학

“섬유질 음료 과연 효과가 있는가?”

황성주 박사  
사랑의 클리닉 원장



섬유질이 예방의학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초기라 할 수 있다. 겨우 변비를 완화시키는 정도의 효과밖에 인정받지 못했던 섬유질이 영국의 의학자인 버킷과 트라웰에 의해 ‘섬유질을 적게 섭취하는 나라에 대장암을 비롯한 각종 만성 질환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 가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 지금은 정설이 된 상태이며 섬유질의 기능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섬유질은 탄수화물에 속하나 사람에게는 소화효소가 없어 열량으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섬유질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영양소가 된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섬유질이 끝마무리 영양소로서 질병 예방의 차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요즘들어 ‘제6의 영양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섬유질은 채소의 잎이나 줄기, 해조류, 곡류의 껍질, 과일, 콩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섬유질은 크게 ‘스폰지형’과 ‘빗자루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당분이나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조절해 주며 후자는 독성물질의 흡수를 막고 신속하게 배설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섬유질은 소화되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므로 식욕을 조절해 주고 비만을 예방해 주는 기능이 있어 많은 여성들로부터

사람을 받고 있다. 성인병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섬유질을 농축시킨 제재와 식품이 개발되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섬유질 제재와 음료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제 문제는 섬유질의 중요성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느냐’이다. 우리의 전통적 식생활에서는 섬유질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다.

김치나 깍두기 없이 살 수 없는 한국인의 식성도 섬유질의 대량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서구화되고 인스턴트화되는 식생활에 의해 섬유질부족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만성변비의 치료나 비만 예방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섬유질 제재나 음료로 섬유질을 보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의 측면에서도 비싼제품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기는 쉽지 않다. 영양의 조화에 신경쓴다면 정상적인 식생활로도 섬유질의 충분한 섭취가 가능함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살을 빼겠다는 욕심으로 과량의 섬유질을 복용했을 경우 트림이나 설사 등을 일으킬 뿐 아니라 불용성 섬유질인 경우 갈증, 철분 등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한다. 모든 일에 과욕은 금물이다. 정상적인 식생활로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여 아름다움과 건강을 추구하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생활이 지속되면 뇌(腦)에 노폐물이

누적되기 때문에 면역력(免疫力)에 관계된 기관의 활동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이러스, 세균 감염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된다

7,202명으로 5년 새 약 18만 2,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melatonin)이 어두울 때 간뇌(間腦) 등면에 돌출해 있는 내분비선인 송과선(松科腺)에서 분비되는데,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이 내뿜는 ‘빛 공해(公害)’가 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잠이 위기에 처한 건 분명하다. 이에 세계수면학회(World Association of Sleep Medicine, WASM)는 수면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밤낮의 길이가 똑 같아지는 춘분(春分, 금년은 3월 21일) 바로 전 금요일(3월 16일)을 세계 수면의 날(World Sleep Day)로 정했다. 전 세계 각국에

들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발견한 미국의 Jeffrey C. Hall 교수(메인대), Michael Rosbash 교수(브라운대), Michael W. Young 교수(록펠러대) 등 과학자 3명이 공동수상했다.

사람의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일정한 움직이는 생체리듬을 갖고 있는데, 이를 생체시계(生物體時計, Biological Clock)라고 부른다. ‘하루주기리듬’ 또는 ‘일주기리듬’으로 불리는 생체리듬은 약 24시간의 주기를 가지고 수면과 각성(覺醒), 호르몬 분비, 신진대사, 체온 등의 중요한 신체 및 정신기능을 조절한다. 생체시계와 하루주기리듬은 우리 몸에 내인성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환경의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자극 중에 가장 중요한 자극이 빛(光)이다.

인간의 생체 리듬은 24.3시간 이므로 자연의 변동 주기인 24시간에 가깝다. 생체주기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는 일반형(정상형), 저녁형(지연형), 아침형(조기형)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생체주기는 뇌의 시상경 교차 상부핵의 유전자 양상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조절된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므로 생체 리듬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나이와 생체시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서 습관을 들이면 큰 부작용을 줄이면서 원하는 생체 주기를 만들 수도 있다.

잠든 직후 90분을 ‘수면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며, 이 때는 뇌의 내정상태 회로(default mode network: DMN)까지도 활동

지저스타임즈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애독자 제위께

2018년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도 부흥과 발전,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신문은 애독자님들의 구독료 및 선교비, 광고료 및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신문이 벌써 창간 12년이 넘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하고 있으며, 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허창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310029-02-152769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32)672-3031(FAX겸용) H.P 010)5468-6574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pj@naver.com



신(편)입생 모집



학 과	수업연안	자 격
학 부	통신과정	8학기 세례, 고졸이상
	목회학과	6학기 세례, 학력제한없음
	신학과	8학기 세례, 고졸이상
연구원	4학기	신학교 졸업자
신대원	6학기	일반대학 졸업자
학술원	6학기	석사학위소지자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인준
- (미)Cumberland University 학점교류
- 과정수로 후 고시를 통해 웨신총회에서 목사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목제도 있음.
- 입학전형 매년 2월, 5월, 7월, 9월, 11월
- 종업식 : 매년 2월 9일
- 문의 : 010-2802-3928 070-7581-0012
- 학교 위치 : 천안서초고등학교 부근

세계로신학학술원  
http://www.garpc.net

# 대구·경북 교계, 부활절연합예배 드려

## 계란·성미 등 이웃에 나눠주며 부활의 기쁨 나눠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교회들이 1일 지역 곳곳에서 이웃을 초청해 '2018년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나눴다. 교인들은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지구촌복음화, 인류 평화 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또 어려운 이웃에게 성미와 계란을 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조근식)는 1일 오후 2시30분 포항살내체육관에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를 주제로 '2018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부활절연합예배는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문명호 포항시의회의장, 장순홍 한동대 총장, 허대만 전 행정부 정책보좌관과 조근식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김원주 전 포항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등 4천여 명이 참석했다.

부활절연합예배는 조근식 목사의 인도, 문성환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장(장로)의 기도, 김찬원 목사(서기)의 성경봉독, 김장환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의 설교, 김영구 장로(회계)의 봉헌기도, 임상진 목사(전 회장)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식전행사는 김유정 포항CBS 아나운서의 사회, 해변대안학대의 '십자가 군병들이' 연주, 대니엘의 '사랑' 색소폰 연주, CCM 가수 테너 박종호 장로의 '하나님의 은

혜' 특별찬양 순으로 진행됐다. 김장환 목사는 '부활절을 생각하며'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부활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항에서 드리는 부활절예배를 계기로 포항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포항이 될 것"을 축원했다.

포항중앙교회(담임목사 손병렬)는 이날 오전 2, 3부 예배에서 28명에게 세례를 주고 7명의 입교를 허락했다. 또 사순절기간 성도들이 가져온 성미를 어려운 이웃에 전달기로 했다. 포항제일교회는 부활절예배를 드린 뒤

다며 전했다. 경주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김상정)는 이날 오후 3시 서라벌대학교 원석체육관에서 '2018 경주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오세원 목사(대구침례교회)는 강사로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의미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경주지역의 성서화와 교회부흥', '나라와 민족', '경주지역 기관과 지역경제', '다음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영덕기독교연합회(회장 김주원)는 이날 오후 3시 강구교회에서 '2018 영덕군기독교교회연합회 부활절 연합찬양예배'를 드렸다. 김주원 회장(영덕읍교회)은 강사로 나서 '하늘을 바라보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부활절 연합찬양예배는 '찬양과 합심기도', '한빛찬양단의 찬양, 전병덕 목사(영해생명터교회) 인도의 합심기도, 차광명 목사(수암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기도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 '나라와 영토', '북한과 민족통일', '지역교회'를 위해 간구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기환)는 이날 오후 3시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의 거룩한 도시로 깨어나라!'를 주제로 '2018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설교는 최영태 목사(대구총성교회)가 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부활절 헌금 전액 대학생들의 장학금과 난치병을 앓고 있는 선교사들의 치료비로 사용한다. 부활절연합예배는 1천600여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연합해 드렸다.

포항에서 이수미 기자

# 대통령의 개헌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헌법 개정은 필요성 못지않게 과정과 내용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가 26일이 뒤졌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헌법 개정,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축소와 지역균형발전 등에 그 초점을 둘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 내용은 매우 놀랄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 이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은 당초 헌법 조항이 130개 조항이었는데, 137개 조항으로 늘어난 점, 전문(前文)에 현대사를 포함시킨, 70마항영, 5718민주화운동, 6710 총성교회)가 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부활절 헌금 전액 대학생들의 장학금과 난치병을 앓고 있는 선교사들의 치료비로 사용한다. 부활절연합예배는 1천600여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연합해 드렸다.

헌법개정안 조문(條文)으로 들어가 보면, 그 동안 없었던 것들이 등장한다. 제1조 3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 제3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18조)에 보면,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었다. 제11조에서는 차별금지 대상으로 기존의 성별, 종교에서,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포함시켰다. 제2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제25조에서는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34조에서는 기존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었으며, 3항에서는 현역군인 등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공무원 노동의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제45조 2항에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6조에서는 국민들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청와대 민정 수석실을 통해 완성되므로, 절차적 하자(瑕疵)가

던 것을 '국가를 대표 한다'로 바꾸었다. 또 제74조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며, 연이어 선출될 경우 중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97조에서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4조에서는 대법관추천위원회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11조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던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가운데 호선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제115조에서는 기존의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121조 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 정부 간 사무 배분에서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런가 하면 제124조에서는 지방 정부가 자체세의 세율과 징수 방법 등을 조례(법)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28조 2항에서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토지 공개념 의미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권리는 신설하고, 감사의 영장청구권이나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등에게 이종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안이 통과되면 여러 단계(국회통과, 국민투표)와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대통령의 의중과 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방향과 목적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우선 헌법 학자들의 의견은,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국무회의가 해야 할 일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청와대 민정 수석실을 통해 완성되므로, 절차적 하자(瑕疵)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들의 토론과 야당과의 논의 등 합의 과정이 매우 부족하였으며, 그 내용이 매우 불투명하며, 공무원 노조, 토지 공개념 등은 이념 편향성의 문제가 있으며, 당초 대통령 권한을 축소할 것으로 보았으나, 그 기대감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한편에서의 헌법학자들의 주장은 국가의 정체성이 바뀔 정도의 헌법개정안 '헌법개정'에 포함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으나, 그 헌법 개정을 위한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여, '졸속 개헌' 내지 '관제 개헌'이란 말들도 나오고 있다.

시민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는데, 이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고, 지방분권 국가로 가게 되면, '조례'가 '법률'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을 조례(법)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28조 2항에서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토지 공개념 의미를 두고 있다.

현재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인'이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듬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국본분열과 함께 국가정체성이 흔들려, 대혼란이 찾아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라는 기틀 위에서 발전하고 지속되어 왔음을 분명히 사실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내놓아, 헌법 개정으로 인한 국본분열과 헌법 경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그 필요성 못지않게, 그 과정과 내용이 매우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자

## 나성열문교교회 창립 25주년기념 임직예배

나성열문교교회(담임 박헌성 목사)는 지난 18일(주일) 교회창립 25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가졌다. 박헌성 담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에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다"며 "계속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 기도와 전도에 힘쓰자"고 말했다.

담임 박헌성 목사가 예배를 인도한 가운데 성요셉 목사(소망장로교회 담임)가 대표기도를, 찬양대가 찬양을, 장성원 목사(담임 1:12)가 성경봉독을 한 후, 이태희 목사(서울성복교회 담임)가 말씀을 선포했다.

이 목사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모든 목회자와 성도

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과 교회의 기도에 부응하는 인생의 결산을 하나님께 드러만 한 다"고 말했다. 김준경 장로가 '교회 연혁과 비전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고 난 후, 2부에서는 당회장 박헌성 목사의 사회로 원로, 중경장로 추대 및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이 열렸다.

서보전 목사(가주노회)가 "임직을 받은 모든 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으며, 김영모 목사(한미장로교회 담임)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과 임직자가 되라"는 요지를 전했다. 박종대 목사(미주서부노회)는 "좋은 교회에 임직자 되시길, 신상원 목사(총회총무)는 "하나님께 헌신할 특권을 받음"에



각각 축하했다. 임직자를 대표해서 김성천 장로가 답사를 하고, 새가족위원장 유성환 장로가 알림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난 후, 박재웅 목사(중경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원로장로추대: 이상재, 김경주, 최계성, 김덕영, 조용호 △중경장로추대: 정진식, 황경재 △장로임직: 김성천, 김용식, 홍일표 △안수집사 임직:

최영삼, 박성주, 임창순, 오영일, 전득진, 염동환, 오진선 △권사임직: 안소연, 유필숙, 노혜숙, 김향옥, 이문정, 김프리실라, 오옥자, 이옥경2, 이현주, 장선숙, 노린다, 김혜정, 이그레이스, 김민희, 이연자, 이혜정, 장혜숙, 권강순, 이경숙, 송하이다, 강미영, 강순성, 문호순, 안옥순, 김무남.

신정현 기자

# 지저스타임즈 · 언론부흥사협의회 제4대 이사장 취임 외 다수 사령

<b>이사장</b> (언부흥 총재)	<b>사장</b> (명예총재)	<b>대표이사</b> (상임대표)	<b>명예이사장</b> (자문)	<b>명예이사장</b> (자문)	<b>부이사장</b> (부총재)	<b>부이사장</b> (명예총재)	<b>부이사장</b> (명예총재)	<b>부이사장</b> (부총재)	<b>대표회장</b> (사무총장)	<b>자료</b> (연수원장)	<b>상임이사</b> (강사단장)	<b>상임이사</b> (총무국장)	<b>부사장</b> (보사부국장)	<b>부사장</b> (부총재)	<b>부사장</b> (수석상임회장)
<b>허창범 목사</b> (웨신총회장)	<b>소진우 목사</b> (예복교회)	<b>정기남 목사</b> (발행인)	<b>정기환 목사</b> (전원중앙교회)	<b>이영풍 목사</b> (빛 교회)	<b>박정균 목사</b> (번성교회)	<b>이규필 목사</b> (합보총회장)	<b>장한국 목사</b> (주사랑교회)	<b>정대성 목사</b> (삼성중앙교회)	<b>곽영민 목사</b> (애농총회장)	<b>이흥희 목사</b> (축복받은교회)	<b>조영만 목사</b> (시온교회)	<b>백운성 목사</b> (안산지사장)	<b>이윤자 목사</b> (벨렐중앙교회)	<b>강요셉 목사</b> (세기청대포)	<b>박수영 목사</b> (행복영교회)
<b>상임이사</b> (부총재)	<b>수석상임회장</b> (자문)	<b>상임이사</b> (부회장)	<b>상임이사</b> (실무회장)	<b>총무이사</b> (실무회장)	<b>상임이사</b> (언부흥회계)	<b>상임이사</b> (상임회장)	<b>상임이사</b> (상임회장)	<b>상임이사</b> (상임회장)	<b>상임이사</b> (상임회장)	<b>상임이사</b> (상임회장)	<b>상임이사</b> (상임회장)	<b>상임이사</b> (공동회장)	<b>상임이사</b> (상임회장)	<b>수석상임이사</b> (부총재)	<b>상임이사</b> (상임회장)
<b>김창동 목사</b> (해남이대기원교회)	<b>박형휘 목사</b>	<b>이선한 목사</b> (영광교회)	<b>김선우 목사</b> (주사랑교회)	<b>김지연 목사</b> (성진교회)	<b>김부경 목사</b>	<b>신연환 목사</b> (웨신부흥회장)	<b>곽동훈 목사</b> (행복회)	<b>홍환표 목사</b> (경주사무총장)	<b>이기학 목사</b> (이름대교회)	<b>서명범 목사</b> (예수패밀리)	<b>곽관근 목사</b> (공덕교회)	<b>김상익 목사</b> (신동교회)	<b>노병주 목사</b> (편성부국장)	<b>오종실 목사</b> (홍성제일교회)	<b>최낙현 목사</b> (산성그리스)
<b>상임이사</b> (실무회장)	<b>운영이사</b> (실무회장)	<b>운영이사</b> (실무회장)	<b>운영이사</b> (공동회장)	<b>운영이사</b> (공동회장)	<b>공동회장</b>	<b>논설위원</b> (상임회장)	<b>운영이사</b> (실무회장)	<b>실무회장</b> (회제부기자)	<b>실무이사</b> (공동회장)	<b>상임이사</b> (실무회장)	<b>자료</b> (지도위원)	<b>자료</b> (지도위원)	<b>자료</b> (지도위원)	<b>광고부</b> (부국장)	<b>성순희 기자</b>
<b>유윤주 목사</b> (조애교정선교회)	<b>박영미 목사</b> (해남이대기원교회)	<b>김창숙 목사</b> (무이오리)	<b>배영자 목사</b> (금천시온교회)	<b>류기형 목사</b> (천안지사장)	<b>정사라 목사</b> (성김교회)	<b>임용선 목사</b> (번영교회)	<b>윤재섭 목사</b> (광주중앙교회)	<b>김정욱 목사</b> (웨신총회총무)	<b>손운재 목사</b> (칼럼리스트)	<b>박용숙 목사</b> (주생령장영교회)	<b>최순길 목사</b> (수목원교회)	<b>허 식 목사</b> (경동총회)	<b>이범성 목사</b> (한기보편)		

■ 지저스타임즈 이사회 및 언론부흥사협의회에서는 문서선교에 뜻을 같이할 이사님과 능력 있는 부흥사님의 가입을 전적 환영합니다. 현재 인터넷(http://jntv.kr http://cpj.kr) 두 곳에서 많은 정보와 교계뉴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36)

하나님의 일곱 영

(지나호에 이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더라.

셋째 생물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일을 합니다. 배도한 종들에 의해 목장구를 같이 하늘 영광을 가리는 역사와 영적 생명을 죽이는 역사에 넘어가지 않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겨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셋째 생물의 역사입니다.

넷째 생물은 청황색 말 탄자의 죽이는 권세 앞에서 이기게 합니다. 죽이는 권세자를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인데 순교 당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감람유 같은 신약은 때릴수록 오히려 더 찬송하면서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깁니다. 넷째 생물인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로 순교하게 하여 금 면류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10절 스물 네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11절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라고 하더라.

24장로가 자신들의 금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집니다. 금 면류관을 던지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와 24장로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면류관을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장로인 자신들은 금 면류관을 받기에 너무나 거리가 멀고 합당치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금 면류관을 받을 만큼 합당하게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제 그 자리에 서게 되면 24장로의 자리가 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어서 즉각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의와 은혜만 영원으로 참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일곱 인으로 봉해졌더라. 계시록 5장은 4장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 되어지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영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른손에 책 한 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책을 인수 받는 내용입니다. 그 책은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일곱 인으로 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 한권이 있다'는 말씀을 대할 때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이 아니므로 사람과 같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고 오른손·왼손이 필요치 않습니다. 역시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서화된 어떤 것을 받아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책이 나옵니다.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종이나 책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돌판에도 기록되는데 그런 것을 통칭해서 책이라고 하신 것

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을 가졌다는 것은 실제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뜻을 정하신 계획서와 같은 그분의 말씀을 계시합니다. 여러분은 사도요한 같이 4장에서 영의 눈으로 무엇을 보았나요? 금 면류관을 쓴 이십 사 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들의 면류관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십 사 보좌에 앉기까지 네 생물과 일곱 영이 관계됨을 깨달았습니다. 또 그 영광이 사도요한과 우리에게 관계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이 사도요한과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한 권의 책인 것입니다. 성부·성자·성령이 한 존재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서로 문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본문 1절에서 그 책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 '책 안팎으로 기록되었다',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 - 하나님은 사도요한과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서 복되게 살게 하실까요?

예를 들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최고의 영광스런 자리가 오른편이고 그것보다 덜한 것이 왼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편에 있는 큰 영광의 자리로 올리실까요, 아니면 오른편 영광보다 덜한 왼편으로 떨어지게 하실까요? 사도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이십 사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십 사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이 오른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른손에 가진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요한과 우리를 최고의 영광된 자리로 세우려는 정하신 뜻·계획이 있다는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인계 받아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책 안팎으로 기록되었다 - 책 안에 써졌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내면에서 이루시는 일을 말씀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늘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더욱 소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책 밖에 써졌다는 것은 내게 영광된 소망을 주신대로 실제 역사세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만물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환란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등장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자들 등장, 교회 타락,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독생자 등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환란을 통해서 하늘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야슈아의 부활하신 이후

마라나타!!

부활(Resurrection)이라는 단어에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의미가 있으며 소생(蘇生)이라는 단어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다시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자로(Nazarus)는 소생했던 것이고, 야슈아는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

야슈아(Yahshua)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atonement)하시기 위하여 땅의 심장부에 내려가셔서 삼일 밤들(three nights)와 삼일 낮들(three nights)을 땅의 중심부에 내려가셨으나 죄가 없으므로 사망 권세와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부활하셨다(막 16:9).

야슈아께서는 공생애 중에 삼일 밤들과 삼일 낮들을 땅의 중심부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세 번 말씀하셨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받으신 후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원장 김수정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마 16:21-23).

두 번째는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이후이다(마 17:22-23). 마지막으로 유월절의 어린양으로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어 말씀하셨다(마 20:17-19). 야슈아께서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 그 괴로 죄들과 법 범들과 불법들을 대속하여 돌아가시고 장사지남을 당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땅의 중심부에 내려가셔서 삼일이 아니라 삼일 밤들(three nights)와 삼일 낮들(three days)을 지내신 후에 부활하셨다(마 12:40, 요 2:18-22).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누구보다도 먼저 야슈아의 무

덤을 찾아 갔다. 무덤에서는 돌이 옮겨져 있고 그 분의 시신은 없어졌으므로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한다. 그 소리를 들은 두 제자 중에 야슈아께서 사랑하시던 요한은 먼저 달려왔다. 그러나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베드로는 달려와서 들어가 보았으나 빈 무덤이므로 두 제자들은 그냥 돌아갔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혼자남아 울면서 시신을 찾다가 부활하신 야슈아를 만난다. 그분을 만난 그녀는 너무나도 감격하여 그분을 만지고 자 할 때 주님께서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8일째 되는 날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는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다.

무엇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번역이 잘못 되어진 것이다. 만지지 말라라는 단어가 2격 단수 중간태 명령문으로 2격을 소유격이 아닌 탈격으로 번역 되어져서 "너는 지금 나에게 안겨 정을 나누지 말라"라고 해석 되어져야 한다고 한다. 향유와 향품을 시신에 부어 드리려고 준비하였던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와 천사를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며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다고 전한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녀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도 않았다.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로 돌려 버린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다.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고 비 진리는 진리인양 믿고 예배한다. 렘5:31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렘 5:1 너희는 예루살렘(Jerusalem)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공산화를 위한 개혁은 반드시 교계와 국민이 막아야 한다!

공산화되면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세계 여행의 자유도 없어 세계 여행은 꿈도 못 꾸다.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도 없어진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교회나 성경이나 예배나 주님 찾아서 안식하는 자유도 없고 사유 재산도 가질 수 없다. 짐승 처럼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 끔찍하다. 그러므로 공산화를 향한 개혁은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 공산화되면 너 죽고 나 죽고 온 국민이 다 죽는다.

토지 공개념으로 모든 토지와 부동산은 국유화 되어 나라에 다 빼앗기고 만다. 전교조 민노총 전 노총 노동계도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 연봉 수 천 만원 -1억 이상 받는 사람들 공산화되면 심본의 1도 못 받는 최악의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월급을 받아도 80%는 나라에 다 빼앗기고 거지처럼 살아야 한다. 하루아침에 알거지 되고 만다. 온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완전 초상집이 되고 생지옥이 되고 만다. 왜 3만 명의 탈북자와 북한의 최고위 층 들까지 목숨 걸고 탈출 했는지 생각해 보라! 해방 후 김일성이 지주들 땅 뺏아 나누어 준다고 감언이설로 어리석은 백성들 속이고 공산주의 만물이 5개월 만에 북한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은 여전히 온 세계가 인정하는 생지옥이다.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가족들 데리고 북한에 가서 1년 만 살아 보면 끔찍한 실상을 잘 알게 될 것이다. 고모



부도 처형하고, 형도 독극물 로 죽이고, 그들이 하는 걸 보라 칼기 폭파, 아웅산 테러, 1.21 청와대 습격, 울진 무장공비 침투 양민 학살 천안함 폭침 등등 그들의 소행은 오직 살인 약탈과 인권 유린 등 북한 사회는 대형 감옥과 같은 지옥 같은 사회다.

축 부 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핸드폰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o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담임 고성규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화로 62-5(봉교리 55-6)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담임 사금열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심야적경기도 오후 9:00(365일).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시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신리교회장). 주일 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일아예배 밤 9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임마누엘교회. 담임 백운성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낮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553-5 ☎ 031-406-7793 H.P : 010-2479-7793

목양칼럼 -17-

#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교회  
JTNTV운영이사



10. 선과 의와 진리 가운데 뒤흔치는 것 이제 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당하게 세상과 죄와 원수마귀와 육신을 이기고 선과 의와 진리와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경험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세상을 이긴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우리의 경험은 세상과 죄와 원수마귀와 육신에게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할 때가 더 많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경험이 틀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사실과 그 분이 내신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둘째로 마음에 동의하므로 영접해야 합니다. 끝으로 영접한 내용들을 의뢰하고 행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째, 둘째,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만 온전한 믿음이 되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를 해방시키고 헬기내지 않는 살려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전능하신 성령님을 믿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여도 정작 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이 죄를 이기셨기에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과,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에서 해방시키고 항상 기뻐하는 살려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전능하신 성령님을 믿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경험과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거나 느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조차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주관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도리어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과 느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의심하며 믿지 않는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의와 진리와 빛의 열매를 맺고자 많은 회개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1년, 5년, 10년, 40년의 노력을 해 왔어도 여전히 세상과 죄와 원수마귀와 육신에게 패하며 선과 의와 진리와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고자 노력은 했으며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열매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뿌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이미 항상 기뻐함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미 범사에 감사함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사랑과 회개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죄와 사탄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까?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심을 믿습니까? 제발 믿고 행하시는, 뿌리(믿음)로 인해 열매(행위)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교만함으로 인해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세상과 죄와 원수마귀와 육신을 이기지 못하므로 좌절과 갈등과 괴로움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과 죄와 원수마귀와 육신을 이기고 선과 의와 진리와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사실과 내신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의뢰하므로 행하는 노력,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헬기를 버리려는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여도 정작 이 헬기 내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헬기 내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이 죄를 이기셨기에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과, 헬기 내는 죄에서 우리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사실과 그분이 내신 말씀을 믿고 행하기보다는 자신이 노력하면 주님도 도와주실 거라는 신념 안에서 자기의(自己義)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자행해 왔습니다. 이전 뿌리 없는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했던 부질없는 행위를 그치고 믿음의 뿌리를 가진,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 2

(무한경쟁시대 미래 교육방향 제시)



김창룡 목사  
하나님이디자인하신교회  
JTNTV 상임이사

무한경쟁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 변화에 달려있다. 미래 교육 변화 예측◆'학교 역할은' 고민에 직면 =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여건 개선' '학습 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상과 교사의 역할 '첨단 학습 환경' 등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중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저 출산에 따른 인구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학교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인원이 늘 수도 있다고 했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변화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첨단 학습 환경의 구축, 이러한 및 사이버학습의 확대 등에 기여함으로써 교육방법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물질만능주의나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해 학교교육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창의적 인재양성 등 인재상의 변화와 더불어 학습자중심·역량중심교육이 강화되고, 이러한 학습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사상과 교사의 역할이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현재의 획일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교육의 기초단계인 초·중등교육에서 인성교육과 사회적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한다고 제시됐다. 특히 응답자 중 대다수는 전반적인 교육행정 및 교원양성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 경쟁력 강화 조건 '통폐합' =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경쟁력 강화'가 핵심 이슈다. 전문가들은 미래 한국 고등교육의 변화에서 대학 통폐합(72%), 특성화를 통한 대학 구조 혁신(54%) 등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구조조정이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더불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교육시장 개방의 확대, 국제교류협력 확대 등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노력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인구 감소에 따라

현재 대학 정원의 30%가 줄어들어 폐교되는 학교가 발생할 것과 글로벌화의 촉진으로 인한 교육 개방으로 맞이한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쟁점별 한국교육의 미래한국교육의 오랜 숙제인 ▲사교육 ▲입시경쟁 ▲학벌주의 ▲대학서열화 ▲교육가치관은 어떻게 달라질까. 전문가들은 한국교육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과 함께 희망을 그려 심화할 것이라 보고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교육 = 사교육에 대한 의견에서 전문가들의 다수(70%)가 큰 변화가 없거나 사교육이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고 있다. 반면 30%는 공교육 강화로 인해 사교육이 축소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학벌주의 = 학벌주의에 대하여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미래에도 학벌주의의 사회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 보고는 의견이 58%로 과반수를 차지하나, 능력주의 확산으로 학벌주의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42%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능력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가 미래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입시경쟁 = 대다수의 교육전문가들(74%)은 입시경쟁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거나 일부러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되거나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은 사회 전반적으로 학벌주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일부대학 진학 욕구가 남아 있을 것이라 예측과 연관된다. 입시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서열화 = 교육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68%의 전문가들이 대학서열화가 유지되거나 고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32%는 우수대학의 증가로 대학서열화가 약화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각 대학의 교육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소위 일류대에 대한 희소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교육가치관 = 학부모들의 교육가치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

적 추세 속에 엇갈리는 전망을 하고 있다. 기존의 성공지향적 수단주의 교육관이 유지되거나 고착된다는 전망이 40%를 차지하는 반면, 성공지향적 수단주의 교육관이 약화되고 소질·능력개발 위주의 새로운 교육관이 정착된다는 전망이 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다양성에 따라 학부모들의 교육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미래 교육 중요 영역◆창의성 교육 중요성 커질 듯 = 전문가들은 희망적인 미래 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교육적 대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미래 교육비전의 설정 및 교교육 시스템의 혁신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미래 사회 인재상에 부합한 창의성 교육을 중요시(76%)하고 있다. 창의성 교육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지할 수 있는 요소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재 양성과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비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학생 교육보다 더 중시되는 것은 바로 교원의 교육력 강화다. 응답자 중 66%는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한국의 교육발전이 교원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처럼 미래 교육에서도 교원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한 것이다. 특히 사회가 일류 학생을 요구하지만 정작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투자는 빈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안으로는 국가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양성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장과 교사의 전근제를 없애 장기간 한 학교에 근무함으로써 학교와 학생에 대한 교육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와 더불어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학교제도, 학습자 중심·핵심역량중심 교육이 중요하며,

또한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비하여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정부규제와 통제가 좀더 유연해지고 개방화의 길을 따름으로써 학교 현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자율성 인정해야 = 고등교육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데, 한국에서 교육받은 대학생들의 능력이 국제경쟁력에 뒤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수·연구인력의 고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답변이 62%였다.이와 더불어 특성화를 통한 대학 구조 혁신(54%), 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 추진(36%)의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고등교육 정책은 국·사립, 일반·전문 등 대학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대학을 기능별로 특성화하지 않으면 사회에 필요한 특화된 인재 양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학특성화를 위해서는 자율적 교육제도와 학생 선발 제도를 인정해야 대학의 자생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 특성화 교육이 실행될 것이라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밖에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 축 부 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주일 예배 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7시, 금요일 저녁 7시  
화요일 2시 집회

담임 김선우 목사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48-161  
H.P 010-3499-2441

**대한예수교 장로회 흥성제일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담임 오종설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천시온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담임 배영자 목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성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일예배 저녁 7시00

담임 박민규 목사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188(구. 응암동 601-65 3층)  
☎ 010-9621-9627

**대한예수교 장로회 벨엘중앙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도회 저녁 9:00

담임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능력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주일 오후 7시  
수요일 오후 7시  
새벽기도 오전 5시30

담임 최순란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77 지하 1층(안양동)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별장·1급~3급자 환영)

원장 박순중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담임 최낙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은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담임 박연자 목사  
주소 : 인천 남구 주안 4동 1483-4 (3층)  
H.P 010-6237-9755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총 사무총장  
사도명성신학신학원 원장  
담임 홍형표 목사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010-7585-1955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촌(직업훈련소)

담임 유순욱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 한기보협, 제32대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 취임 가져

## 「성경으로 돌아가자」1200만 성도들에게 성경 필사운동 전개!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한기보협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3월 23일(금)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90 여전도회관 14층 제2강의실에서 제32대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호헌 총회회장)의 취임감사예배 및 제12회 신학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한기보협 제32대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취임감사예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주제아래 협의회 서기 조조복 목사의 인도로 이형규 목사(예장 호헌총회 서기)가 기도

를, 성경봉독(마 5:38~45)에 김은임 목사, 특별찬양에 서소희 전도사(미주 복음방송 아나운서 및 찬양사역자), 선환규 목사는 “대적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특별기도에 박수일 목사(기독교 대한 자유감리회)가 국가안정과 통일을 위하여, 이안나 목사(예장세계계신교연합회)가 한국교회와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각기 기도했다. 또한 도광을 목사의 특송과 오현관 목사(오순절총회 총무)는 드러진 헌금을 위해 기도했다.

입기 2년의 행보에 들어선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취임사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아울러 150여 명의 교단장과 내빈들을 향해 인사 했다. 이어 한 대표회장은 한기보협은 교단, 교파

가 각기 다른 연합단체로서 화합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으며, 협의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한 어려움과 고소고발로 인하여 얼룩졌던 아픔들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간의 아픔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본 협의회 연합단체는 화합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기 때문에 이곳에 정치가 개입되지 않도록 정관 규칙을 올 안에 바꾸고 기도하는 협의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회장은 또 조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정치도 개입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치는 하나의 가지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기독교 단체의 연합은 근본적인 사명이 조화를 이루는데 있다”고 했다.

또한 이날 한홍교 대표회장은 2

년 임기동안의 비전은 오직 한국기독교 1200만 성도들에게 성경 필사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본 협의회는 성경 필사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면서 본 협의회에 성경필사를 접수한 성도들에 한해서 선물을 증정할 것이며, 한기보협과 대표회장의 비전임을 밝혔다.

이어 이의근 목사(기독교 대한자유감리회 감독)은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에게 취임패를 증정하고, 한 대표회장은 임원들에게 임원인증서를 전달한 후 진공열 목사(중부지회장)의 격려사, 김주상 목사(일만교회 세우기 운동본부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김준희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곽영수 목사(기독교성경원형(본질)회복연합 총회장)의 축도 순으로 마쳤다.

한편 이날 제12회 보수 신학세미나는 한기보협 신학위원(위원장 김

주상 목사)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제1강의를 맡은 고용택 교수(국제강해설교 연구원 교육국장)는 “중교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강의했다. 제 2강의에 나선 백장준 교수(예장(합동정통)총무)는 “무지개 언약에 대하여”란 주제로 강의했으며, 제3강의를 맡은 선환규 교수(예장영신 총무)는 “사람 창조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강의를 끝으로 마쳤다.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이 후로는 본 협의회 사무실에 마련된 예배당에서 모든 세미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새롭게 오픈된 협의회사무실은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길 25(호음빌딩 6층)이며 예배당 겸 강의실은 약 90여 평에 12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

# “세계복음화는 어린이로부터 시작”

‘세계복음화는 어린이로부터’를 목표로 미주한인지역 어린이 선교에 앞장서온 어린이 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가 주최한 ‘제24회 후원의 밤’이 LA코리야타운 내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대표 여병현 목사는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통해 “어린이 전도와 교육은 당장 끝나야 할 사역이다”라고 강조했다.

데보라 리 이사장은 후원의 밤 참석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표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 바쁜 중에도 후원의 밤에 참석하심을 감사드리고, 주안에서 비전도 나누고, 순서마다 행복한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개와 나눔의 시간에는 노형진 선교사(글로벌메시야 선교교회)가 ‘내양을 먹이라’ 특송을 한 뒤, 어린이중창단의 특별 순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이 합심하여 ‘어린이를 위한 기

도’와 ‘어린이전도협회’ 발표를 위해 기도를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 전도협회 4대 중점 사역인 △전도사역(아외전도, 어린이 부흥회, 단기선교) △자료보급사역(교사훈련자료, 전도, 선교자료) △교육사역(교사대학, 창작교회)가 ‘내양을 먹이라’ 특송을 한 뒤, 어린이중창단의 특별 순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이 합심하여 ‘어린이를 위한 기

발표했다.

한편 어린이전도협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가까운 성경적인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적이며 초교파적인 어린이 선교단체로

서, 어린이 선교를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후원이사 혹은 후원 교회 및 단체 회원, 개인사역후원, 어린이회관 및 캠프장 구입기금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현욱 기자

## 어린이전도협회 제24회 후원의 밤

# 전학연, 가짜 성평등 페미니즘 규탄 성명

### 세계여성의날 맞아 왜곡된 성평등 바로잡아야



전국학부모단체연합회는 지난 19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민주노동당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성평등 모범조합원상’을 수상한 최모 교사가 수상한데 대해 동성애, 급진 페미니즘 교육을 하는 자에게 수상을 하는 것은 여성의 날 주제 세력의 정체성을 알리는 반증이며 학부모를 조롱하는 저질 정치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전국학부모연합 성명서 전문) 세계 여성의 날에 외치는 젠더

(성)평등을 비판한다. 지난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다. 그날 문제교사 최현희는 광화문에서 미투운동에 앞장서고 ‘성평등 모범 조합원상’을 받았다.

동성애, 급진 페미니즘 교육에 학부모가 분노한 자를 수상하는 것은 여성의 날 주제 세력의 정체성을 알리는 반증이며 학부모를 조롱하는 저질 정치다. 우리 여성계는 이미 성평등(젠더)장사꾼들 집합으로 변질됐고 돈으로 장악됐다. 성차별지수 영역을 만들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시행한다.

학생인권조례로 위장한 가짜인권 장사꾼들 하는 행태와 놀람도 록 유사하다.

1. 교육과정을 만들고 강사를 양성한다. 2. 정부 세금을 철저히 게 이용한다. 3. 입법화와 지방 조

를 집중 공략한다 등, 100여 년 전 외치던 여성인권, 평등과는 전혀 다른 지나친 주장, 왜곡된 여성 인권 구호로 행사 의도는 이미 의심 받고 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성소수자, 인종, 계급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게 요구한다. 학교와 미디어에게 페미니즘을 의무교육 시키라 요구한다. 심지어 양성의 평등도 젠더(성)평등으로 바꾸라고 주장한다.

전학연은 이런 모든 상황에 분노한다.

세계적으로 논란 많은 젠더 이론을 강요하고 페미니스트 조직을 확산시키는 것을 염려하며 진정한 남녀평등을 원한다. 교사의 80%가 여성이어서 이뤄지는 절름발이 교육엔 눈감고 감히 양성평등을 얘기하다니... 지나친 여성의 인

권주장으로 남성의 실 자리가 좁아져 남성연대, 안티페미 운동이 펼쳐지는데 아직도 남성과 여성을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가해자, 피해자 구도로 나누고 기울어진 운동장 타령을 하는 것은 얼마나 뻔뻔스런 여성계인가?

여성이족부가 만들어진지 20년이 넘었으면 남녀가 화합하고 가족이 탄탄해져야하는데 하는 것이란 성 영향평가, 젠더예산, 그 중 ‘신시대 독신여성 심리안정을 위한 반려전 지원예산’이란 기막힌 이름으로 국가 예산을 좀 먹고 나라 망치는 짓만 해대나 영터려 여성인권에 딸들은 책임과 의무에 소홀한 도덕 불감증 환자가 되어 간다.

그러므로 인해 남녀갈등을 유발하면 결국 피해자가 여성이 될 수 있다

것은 왜 가르치지 않는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여성학, 젠더학으로 확산되는 궤변이 만들어낸 젠더 이론이기에 우리는 철저히 배격하고 경계한다.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젠더 평등 단체들은 남녀 차별은 일차적 타개 대상이고 인종, 계급 등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이들은 미투운동으로 혐오, 차별 해결을 위한 차별금지법, 혐오발언방지법등을 통과시켰다고 외치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이 만능이 아닌데 이렇게 법에 목매는 것은 이들이 성별해체로 결국 가족을 해체하려는 극단적 세력이기에 국민은 정신 차리고 젠더(성)평등 세력에 대항해야 할 것이다.

# 예장진리총회 대한노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서기**



**박민규 목사**  
(천성교회)

**회의록서기**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회 계**



**김정미 목사**  
(새에루살렘교회)

**노회장 : 장한국 목사 010-4436-7060**  
**서기 : 박민규 목사 010-9621-9627**  
**☎ (031)424-7612**

진리총회(대한노회) 사무실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 (구,내손동)  
노회장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010-9621-9627 ☎ (031)424-7612 (JTNTV,http://jntv.kr 지저스타임즈)

**축 부활**

http://www.mokpojuan.com



**담임목사 모상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배/시/간**

주일낮예배 1회 오전 8:00  
3회 오전 11:30

주일말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30 (겨울 7:00)

새벽예배 오전 5:00

**교회를 섬기는 분**

부 목 사 모정선, 박민수, 성남수, 모성은

협 동 목 사 장정화

전 도 사 윤영옥, 송선택, 띠베트남·신학교 유학

협동전도사 추정희

파송선교사 임재선(베트남), 김은미(베트남), 안윤기(캄보디아), 김진희(캄보디아) 신길현(미얀마), 백현주(미얀마), 김미경

시 무 장 로 송영문, 천은성, 정승안, 이현필, 주종필, 김정서, 김영규, 김학진, 김선호, 모상후, 송현중

협 동 장 로 이병화

은 퇴 장 로 고재연, 원복희

**대한예수교 목포주안교회** 주소: 58714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 061)272-4908, 팩스:061)276-1006



III.성막 영성과 구원 서정의 5단계 (20)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하신다

세상일에는 무슨일이든지 기준이 있다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겔47:1-12) 세상을 보더라도 자신이 기준이 되어 보게 된다. 이때 그 분량을 따질 때 그것을 부피라고 하고 무게를 따질 때는 중량이라 한다. 그러나 일의 진행속도를 말할 때는 진도 또는 척도라고 한다. 바로 믿음에 있어서도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이때 믿음의 척도란 말을 쓰게 된다. 세상 속에서는 어떤 일에 든지 일을 통한 진척 도를 점검하고, 환자에 있어서도 의사의 진찰을 통해 병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며, 기업에 있어서도 건전한 기업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기업 진단서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영적세계를 다루는 종교계에서는 어떠한가.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구원의 문제 영적문제를 진단하고 다루는 제도가 있는가? 이런 것이 없으니 성도들이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그들의 신앙의 척도나 진단을 통하여 지도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시고(욘11:11, watch) 계심은 물론 감찰(창16:13, Inspect)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척도를 성막 속에 숨겨 놓으셨고,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믿음의 성장단계를 성막 속에 다섯 단계로 나누어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을 점검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1단계: 회막문과 발바닥 믿음(갠나아기 믿음)

“좁은 문(예수그리스도)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7:13~14)”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인 회막인으로 들어오라 하시며 오직 동쪽으로 난 좁은 문(예수그리스도) 그쪽으로 들어가라 하셨다.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회막)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 그 물들이 오른쪽 제단의 남쪽 편에서부터 내려오더라(겔47:1)” “그때에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문의 길에서 데려다가 바깥길로 인도하여 동쪽을 바라보는 길옆에 바깥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서 오른쪽에서 물들이 흘러나오더라(겔47:2)”

즉 회막문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 그 물이 성막 뜰(집을 잡는 곳)까지 흐르는데 그 믿음의 물은 발바닥만 적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기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 교회에 나온 초 신자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지? 나는 왜 죄인이 되었는지? 죄인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고난의 단계를 말한다.

2단계: 성막 뜰과 발목 믿음(부모찾는 믿음)

“순에 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며 천 규 빛을 측량한 뒤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물들이 이제는 발목까지 이르렀더라(겔47:3)”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회막문에서 나와 흘러내리는 그 물을 밟고 제물로 가져온 짐승을 잡는 것이 죄라는 사실과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깨닫고 참 회개를 함으로서 믿음이 발목 믿음으로 자란 것이다.

3단계: 반제단과 무릎 믿음(철이 드는 단계)

“다시 그가 천 규 빛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무릎에 오르고...(겔47:4)”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께 이끌려 성막뜰에서 반제단까지 일천 척을 측량하니 믿음의 물이 무릎까지 찾다고 한다. 이제는 신이난다. 물에서 탈영이기도 하고 물장구도 치는 기쁨도 있지만 한편 죄는 흠이 라도 용서받지 못하므로 철저히 자신이 죽어야함을 깨닫고 반제단(십자가)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러진다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죽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을 알 때 감사할 줄 아는 단계까지 된다고 할 수 있다. 반제단은 옛세대에 동산에 세워진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반제단에 나아가 죄를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하는 것이다. 죄 덩어리였던 내가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야 주님의 부활처럼 거듭날 수 있음을 깨닫는 단계 즉 내가 영적으로 죽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철이든 단계라 할 수 있다.

4단계: 물두멍과 허리 믿음(홀로서는 단계)

“...다시 그가 천규빛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허리에까지 이르렀더라(겔47:4)” 주가 그를 데리고 물두멍까지 측량하며 데리고 가니 이제는 그 물이 허리에 찻다고 한다. 물이 허리까지 찻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유함이 생겼다. 어린아이에서 성장하여 앞뒤도 가릴 줄 알고 선악도 구별할 정도가 되어 혼자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비로소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을 줄도 알게 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니 하나님과 주권과 공의성을 깨닫고 영위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사모하고 모실 것을 결심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이제 비로소 혼자 독립하여 홀로 설 수 있게 되는 단계이다. 깨끗한 신부로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오직 그분에게 나의 혼(魂)을 다해 생각(知)과 감정(情)과 나의 의지(意)를 생명 받쳐 삼길 각오를 했을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격이 된 것이다. 이때 성령세례를 받게 되며 중생되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다.

5단계: 성막과 탁발 믿음(혼인, 동행)

“그 뒤에 그가 천규 빛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물이 솟아올라 해엄칠 물이 되고 강이 되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겔47:5)” 주가 물두멍에서 천규빛을 측량하였더니 성막에 당도하여 이제는 그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완전히 은혜의 물속에 잠겨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제는 마음대로 헤엄도 치고 다이빙도하고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은 다 갈수 있는 자유함이 오게 된 것이다.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고 결혼한 것이다.

주님은 에스겔서 47장 8절부터 11절에서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시니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에 그 물들이 치료 되리라”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그물들이 거기에서 이르므로 이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강이 흐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또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예베갈라만에 이르러까지 그 강 위에 서리니 그 지역들이 그물을 치는 곳이 되리라. 그 지역들의 물고기가 그것들의 종류대로 대개의 물고기와 같이 심히 많으리라” “그러나 그 지역들의 수렵과 늑지대들은 치유되지 아니하고 소금에 넘겨지더라”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흘러 모든 자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뻐 뛰며 치유되고 생명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 12절에서는 “또 그 강가의 북 위에는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 하리라. 그것이 자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즉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자유함을 누리며 가는 곳마다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소생되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끝으로 내 믿음의 주권과 주관과 공의성을 깨닫고 영위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미투 운동에 즈음하여

얼마 전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조민기씨가 경찰 출석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또한 수년간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외대 교수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라는 17일 뉴스 보도가 있었다. '미투' 관련 사망은 지난 9일 숨진 배우 조민기씨에 이어 두 번 째다.

최근 자신이 관련된 문제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큰 위기에 처한 유명 인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는데 이번 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조금 염려하긴 했어도 다시 그런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소식에 대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 선택은 당연히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다른 편에서 생각하면 그들의 선택은 비겁하거나 최악의 도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신이 그들에게 선사한 귀중한 생명을 자신이 함부로 자살로 끝냈다는 것도 비통한 일이지만, 그들의 이기적인 죽음은 남은 유족들을 탈출구 없는 영원한 나라로 떨어트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도 매우 안타깝다.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들에게도 어쩌면 그들의 죽음이 자신들 때문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고스란히 남겨 줬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히고 아플 정도다. 물론 본인들이야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끄러운 행위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법도 하지만 차라리 대중 앞에 나서서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사과 하며 죄 값을 치루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 듯 머리 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물론 그들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잘못된 생각을 했고 무책임했다는 비난을 면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문화계, 정치계, 법조계, 종교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성범죄 고발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은 2017년 10월 미국에서 해비 와인스타인(Harvey Weinstein)의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서 인기를 끌게 된 해시태그(#MeToo)를 다는 행동에서 시작된 해시태그 운동(Hashtag activism)이라 알려져 있다. 이 해시태그 캠페인은 사회 운동가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사용했던 것으로, 앨리사 밀라노(Alyssa Milano)에 의해 대중화 되었다고 전해진다.

밀라노는 여성들이 트위터(twitter)에 여성혐오, 성폭행 등의 경험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의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독려했으며, 이후 수많은 저명인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밝히며 이 해시태그를 사용했다. 이처럼 밀라노가 미투 캠페인을 제안한 지 24시간 만에 약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리트윗(retweet)하며 지지를 표했고, 8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MeToo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성폭행, 성추행 경험담을 폭로했다. 이때부터 이러한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이러한 운동이 깊숙이 파고든 상태다. 지난 2018년 1월 29일 현지 검사 서지현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검찰 내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전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퍼져 나가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대한민국을 연극연출가 이윤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퍼져 나가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대한민국을

서지현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검찰 내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전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퍼져 나가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대한민국을 연극연출가 이윤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퍼져 나가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대한민국을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미투 운동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것은 이 운동으로 인해 점점 사회가 투명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열려되는 한 가지는 미투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성범죄 피해 사례의 글을 올렸다가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글을 삭제한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누명을 쓰고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자에게는 그의 인생사에 치명적인 독을 미칠 수 있고 큰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한편에는 이 미투 운동을 반대하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미투 운동은 일종의 성추행, 성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feminist)의 남성 혐오에 대한 거짓된 발성이라 치부하기도 한다. 밀도 팔도 없이 여성의 말 한마디면 상대 남성은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잃는다는 것이다. 미투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의도적인 악심을 품고 한 사람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남자 한명 요절내는 것도 일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거지 고소는 심각한 거짓말이며 말로 공격할 수 있는 최악의 개인적 방법이고 여기에서 미디어는 핵폭탄을 싣는다면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수의 가장 예리한 칼날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이러한 일은 우리 사회에서 분명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인 하지만 그렇다고 미리 열려버려야 하는 것도 지금 순수하게 알고 있는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러한 주장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이성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앞으로 이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많은 의미를 남길 수 있는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앞선다. 우리 사회는 실제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왔다. 그 럽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지적이나 피해의 사실을 알리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로 여겨져 왔다. 막상 용기를 내 이야기를 해본들 오히려 가해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 꼬리를 친 꽃뱀 정도로 매도당하기 쉽고 오히려 피해자는 자



논설위원 임용선 목사

신의 지위를 잃을까봐 피해당한 사실 자체를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이름다운 시를 쓰며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고은 시인을 비롯하여 참신한 이미지 상을 뛰어 넘어 나라를 책임지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대통령까지 꿈꾸던 존경과 사랑을 받던 사람도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니 이제 성범죄는 무식하고 음란하고 흉악한 사람만이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새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이제 사회적 위치나 명성,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보호막이 되던 시기는 이미 막을 내린 것이다.

지금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MeToo 폭로들은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 많은 정치인들이 흰 정복 브로치를 달고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WithYou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일부 정당들도 미투 운동에 동참하며 여러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지난 2월 28일에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미투 운동. 여성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용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응원해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다. 지금 미투 운동이 휩쓸고 있는 문화계, 정치계, 체육계, 의료계, 교육계 등을 뛰어 넘어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파만고 퍼져나가고 있다.

아직도 많이 감추어져 있을 성범죄가 이번 미투 운동을 통해 한번 뒤집어지고 나면, 후에는 아마도 이러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나 기타 유사 행위들은 이 땅에서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현재 거세게 일고 있는 미투 운동의 전과 후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더 이상 권력에 의한 성범죄가 사라지고 피해자가 숨고 귀시하는 그런 분위기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

이제 우리 종교계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되었다. 무조건 덮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까발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해석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아 문제가 되는 것을 사회적 여론이나 세속적 흐름이 압도적이라 해서 이에 편승해서 따라가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무조건적인 침묵도 능사는 아니다. 물론 교회를 내에서도 뜻하지 않는 성범죄와 관련된 반성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회개하며 바로잡아야 하며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딜 각오로 이를 도려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며 지혜로운 판단과 조심성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도 중요한 일이지만 죽을 생명도 동시

Advertisement for WRTS (Worldwide Religious Training School) featuring '꾸미오리기독교무용신학' (Cumbria University) and '신입생 모집 요강' (New Student Recruitment Guidelines). It lists various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오순절교회협의회 성서하나님의교회'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It features a sermon by Pastor Lee Jung-ho and a table of service times for various locations.

Advertisement for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Samsung Joong-ang Church). It features a sermon by Pastor Jung Dae-seong and a table of service times.

Advertisement for '에녹부흥신학 모집' (Enoch Revival Theology Recruitment). It lists various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Enoch Revival Theology School.

부활절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사건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서 여러 분들의 현재의 삶에 작용되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11:25-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날이며 부활절은 절망과 불가능의 돌은 옮긴 날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믿음과 소망 두고 힘을 얻어 인생 구석구석의 모든 문제가 해결 받는 은혜의 부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부활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 사실을 확신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주님은 성경의 언약대로 십자가

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고전15:3-4)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민23: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 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던지 아가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비전과 꿈과 소망과 힘을 얻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전15:58) "그러므로 부패하는 형제들이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셋째, 부활절은 우리에게 사명



을 일깨워 주는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사 우리 사회 전반에 임하여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핵전쟁의 위협과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 더 이상의 눈물, 고통과 실적이 많은 사회에서 소망과 평안, 생명과 사랑과 공의가 넘쳐흐르고 생명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된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영혼과 가정, 직장, 사업장, 사회공동체를 소생시키며 살려내는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부활절 사명에 불붙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흑암권세와 불의와 죄의 권세와 폭력은 결박되어 물러갈지어다.

이를 위해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더욱더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불붙

려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의 이름을 함입어 생명 얻게 되고 성전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부활능력으로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고 하나가 되어 우리의 꿈인 핵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통일국가 One-Korea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더욱더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불붙

한국교계의 표상인 웨신총회 상표 등록완료

웨신 상표등록, 다양한 영역주권으로 독립적인 홍보의 길 열려

웨신총회(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지난 2017년 6월 '웨신'이라는 총회의 상표를 출원한 후 1년 여간의 출원심사와 공고기간을 거쳐 최근 상표등록(특허청 상표등록 제40-1339654)이 완료됐다. 웨신총회는 '웨신'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됨으로써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웨신총회의 유사 기관에 대한 명예를 법적으로 강화하고 '웨신' 상표를 활용한 선교와 부흥회, 집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홍보를 전개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었다. '웨신' 총회상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의 약자로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으로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교계의 표준 총회를 지향하고 있다.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총연합회원 교단으로 연합과 화합에 협력하고 있다. 웨신총회 상표 등록에 중심적 역할을 한 웨신총회 교단 발전위원장 신언창 부총회장은 "이번 상표권 등록을 통해 총회 소속 목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총회의 자부심을 고양하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되었다"며 "정식 등록된 총회의 상표를 발판으로 더욱 성장 발전하는 총회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일컫는다. 주요 상표법 위반 행위는 본회의 허락없이 '웨신'에 해당하는 명칭 또는 교단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



의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직접 침해 행위를 한 자 외의 기관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다(상표법 제230조, 제235조). 이후 웨신의 상표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본 총회의 허락과 또 사용범위 안에서의 제한된 사용이 어야 한다.(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02-835-2606) ©취재부 김정욱 기자 yy1647@empas.com

순복음강남교회, 4.2-6.30일까지 매일 '미스바 구국기도회' 진행

4월 2일- 6월 30일까지...매일 오전 10시30분에 모여 나라와 민족 위해 간구

순복음강남교회(담임목사 최명우)가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미스바 구국기도회'를 진행한다. 최명우 담임목사는 "오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이어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6.13지방선거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평화통일,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의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기도회를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첫날인 2일 기도회에는 전영생 목사(대학부)가 기도회를 인도했다. 전 목사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며 "우리를 살려 주소서"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신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하난에 의해 몰살될 상황에 이르렀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재를 무릅쓰고 회개했다. 유대인들은 절

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드개는 유대 민족을 살릴 방안을 찾기 위해 기도했다. 그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개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후 에스더에게 도전했다"며 "에스더는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로 나아갔다. 우리도 결단할 때가 있다. 그 때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우리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며 "전쟁하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와 평화적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는다"고 말했다.

웨신총회 "웨신대학노회" 재건, 정기노회 결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지난 15일 지역 허창범 총회장과 임원들이 노회원들과의 만남에서 진솔한 토론을 갖고 웨신대학노회를 재건하기로 결정했다. 한때 웨신대학노회의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았던 개교회 목회자는 물론 성도들까지도 웨신대학노회가 총회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서 이날 뜻을 같이한 노회원들이 웨신대학노회를 재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웨신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용단을 내린 노회원들과 성도들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웨신대학노회는 4월 19일



까지 정기노회일정을 정하고 임시 조직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최정수 목사(일상교회), 부회장 박성기 목사(용인 주소망 교회), 서기 허송무 목사(더열교회), 회의록서기 이호성 목사(삼전교

회), 회계 김인화 목사(새소망교회) 등이 선정되었다. 웨신대학노회가 박우재 목사 외 일부가 분리 이탈된 것을 오는 4월 19일 정기노회 전까지 웨신대학노회 고유의 명칭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의 파행적이며 독단적 운영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노회로 운영할 것을 천명한다는 방침이다. 웨신대학노회 정기노회 일정은 오는 4월 19일(목) 11시이며, 경기도 용인시 주소망 교회(박성기 목사 사무)이며,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95-2 강남대프라자 7층이며 연락처는 010-6777-6616이다.

Large advertisement for Pinetree Presbyterian Church (푸른솔교회) featuring a group photo of the church leadership, contact information, and a vision statement: "From Gwangju To all over the world!". It also mentions the church's affiliation with JNTV and the Korea Christian Council.



# 2018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제목: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성경: 잠언 6:16-19 찬양: 274장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구역질 나는, 가증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교만이 있습니다. 원래 사단은 루시퍼(셋별, 계명성)라 하여 천사 가운데서도 뛰어난 천사였는데, 교만하여 광명한 새벽 별이신 주님(계 22:16)의 자리를 탐내다가 스올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되었으니(사 14:12~15) 여호와와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교만을 멀리하고 거기를 벗어 버려 하느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노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하늘이여 찬양하라!**  
성경: 시편 148:1-5, 찬양: 21장

사람은 미련하여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로 1:19~20), 자연은 비록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그들에게 없다 해도 창조주를 알아보고 순종합니다(출 14:21). 그러므로 성경에 자연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된 많은 성구들은 단순히 시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 상황인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우주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 받은 성도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욱 귀한 존재이기에 그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성경: 시편 149:1-4 찬양: 69장

'새 노래'란 세상의 속된 것이 섞이지 않아 때 묻지 않은 신선하고 순수한 찬양 곡을 말합니다. 인간의 기교를 과시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경건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창조주로서 우주를 지으셨고(시 136:5), 한 줌의 흙에 불과했던 우리를 모든 생물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나 자신만 보아도 하나님의 기묘하신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표현 수단을 써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여호와의 도를 따르라!**  
성경: 잠언 1:7-9 찬양: 65장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교만한 인간의 생각대로만 행하면 망합니다(호 4:6).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호 6:3). 그렇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처음, 시작)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가 누구신지 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 완벽한 존재는 아니므로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훈계를 따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듯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바랍니다!

**제목: 지혜가 부르는 소리!**  
성경: 잠언 1:20-23 찬양: 366장

모든 지혜의 근원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공명정대하신 인격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배경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로 구름을 세우고 땅의 터를 놓으셨고(잠 3:19) 세계를 세우셨습니다(렘 10:12).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이 모든 일을 그의 말씀을 통하여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시니(요 1:14)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말씀, 곧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로 10:17)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엡 2:8).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굳건해지고 구원의 소식이 간증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지혜로운 자의 사랑!**  
성경: 잠언 21:8 찬양: 204장

사람이 범죄하여 영원히 멸망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재비로하신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의 백성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요 10:28~29). 이 영생을 받은 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여부입니다(요 14:21).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는 그가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요일 5:3). 지혜로운 자, 곧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형통함을 누립니다(요 15:7). 계명을 한 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형통의 비결!**  
성경: 잠언 35-10 찬양: 384장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는데(시 8:5), 그 부여

하신 인간의 능력에 인간은 스스로 놀라고, 이것 때문에 교만하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흠(티끌, 먼지)으로 지어진 연약한 인간의 지혜이지, 그것만으로는 창조주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여 창조 목적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주를 신뢰하고, 주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추가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제대로 인간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여 길을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는 여호수아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형통의 비결은 잘 맡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제목: 선을 베풀라!**  
성경: 잠언 3:27-35 찬양: 516장

의인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고전 4:7), 의인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선언 받은 자입니다(롬 5:1). 그러므로 의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맡은 청지기로서 주인의 의도에 맞추어 자기가 가진 것을 사용합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막 12:31), 성경은 원수가 배고파하면, 네게 베풀 힘이 있을 때에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면 물을 마시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반드시 여호와께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잠 25:21~22). 의를 행하는 자는 선을 베푸는 자입니다. 오늘도 선을 베푸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마음을 지키라!**  
성경: 잠언 4:20-27 찬양: 204장

마음은 보이지도 않으면서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도 생각이 있었지만(마 8:27) 그것이 지성의 띠를 갖춘 인격체인 사람의 경우처럼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는 마음으로써 발전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부패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므로(렘 17:9) 성도는 이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 지키고 항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 곧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마 12:34~37). 구부러진 말을 멀리 해야 하는 것은 곧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도 말을 조심함으로 마음을 잘 지키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멀리해야 할 것들!**  
성경: 잠언 5:7-14 찬양: 420장

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될 수 없는 상태나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한 악에 해당될 수 있어

특별히 경계하시는 언행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요일 4:8) 마땅히 그의 창조하신 인간도 창조주의 형상으로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만, 말세에는 사람들이 패락을 사랑하는데(딤후 3:1)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눅 9:25). 완고한 사람은 성도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출 32:9). 성도가 멀리해야 할 것들인 악, 무익한 일들, 완고함을 오늘도 멀리하기 바랍니다!

### 부활절메시지

## 할렐루야!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날마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요일 21:24-25)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적과 기적, 표적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누가 감출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없었던 일을 꾸며낸 소설도 아니며 있는 사실을 그대로 꾸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이루심에는 예언이 있고 표적이 있으며 반드시 증언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가격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일반 달란트 빛진 자의 비유에서 일반 달란트란 금액은 요즘 노동자들 일당으로 대략 계산하자면 16만년을 쉬지 않고 일해도 값은 수 없을 만큼의 금액입니다. 자 그마저 16만년입니다. 16만년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실사 자치순수 대대로 값은 해도 16만년이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의 값은 우리가 치를 수 없을 만큼의 값이라는 것이며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저주의 삶, 지옥의 삶을 단번에 끊어놓으셨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은혜는 없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소진우 목사  
신분방송 사장  
(예복교회 담임)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께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랑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일 1:1-4)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 속에서 살아나셨고 분명히 역사 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은 모든 우주적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며,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임을 기억하고 오늘 그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는 기도로 순종하고 승리합시다. 우리가 도저히 값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이러한 확실한 은혜 속에 잠겨 살면 불행이나 원망 하지 않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으며 힘든 일도 지지치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날마다 새기며 이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합창해 살아갑시다!

# 소진우 목사 2016년-2018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분 칼럼리스트

<p><b>2016년 9월</b></p> <p>5-8 교단총회</p> <p>12-17 추석주간</p> <p>19-23 선교지방문</p> <p>25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p>26-28 다사람교회(방명현 목사)</p> <p>29 군산예교회</p>	<p><b>2016년 10월</b></p> <p>3-6 에스겔교회(김양선 목사)</p> <p>10-11 정기노회</p> <p>17-21 임원수련회</p> <p>2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p>24-27 새진영교회(설정학 목사)</p> <p>31-11.2 홍주교회(고영석 목사)</p>	<p><b>2016년 11월</b></p> <p>5 안양칼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p> <p>7-9 살롬교회(고정익 목사)</p> <p>14-16 경천교회(이원경 목사)</p> <p>17-18 노회지교회(심방)</p> <p>20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p>21-23 총회영성대회</p> <p>28-30 행복예수원교회(이명진 목사)</p>	<p><b>2016년 12월</b></p> <p>4-7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p> <p>12-15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p>18-24 거룩부흥교회(예복교회)</p> <p>26-30 은사람교회(최태식 목사)</p>	<p><b>2017년 1월</b></p> <p>2-4 거창성경교회(김성철 목사)</p> <p>9-12 실목교회(조만희 목사)</p> <p>16-18 종기교회(백현기 목사)</p> <p>23-28 (인도선교)</p> <p>30-2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p>	<p><b>2017년 2월</b></p> <p>3 함양산기도원(이영근 원장)</p> <p>6-9 김팔산기도원(이옥란 원장)</p> <p>13-17 선교지세미나</p> <p>20-22 초대총안교회(김옥남 목사)</p> <p>27-1 중동교회(서종표 목사)</p>	<p><b>2017년 3월</b></p> <p>6-10 필리핀 예복교회 헌당예배 및 선교지 방문</p>	<p><b>2017년 4월</b></p> <p>3-5 홍주교회(고영석 목사)</p> <p>6 오산리금식기도원(권경환 원장)</p> <p>9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p>10-13 오정성교회(이주영 목사)</p> <p>17-18 정기노회</p> <p>18-20 안대교회(정진수 목사)</p> <p>24-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p><b>2017년 5월</b></p> <p>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p>8-12 네팔선교지방문</p> <p>15-17 주영광교회(지재문 목사)</p> <p>21-24 사랑의빛교회(오성민 목사)</p> <p>29-31 초대교회(윤준호 목사)</p>	<p><b>2017년 6월</b></p> <p>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p>4-8 빛과사순교회(송영만 목사)</p> <p>12-16 선교지사역세미나</p> <p>18-30 본교회 2주년축성일대성회</p>	<p><b>2017년 7월</b></p> <p>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p>3-6 광선수양관(방만석 원장)</p> <p>10-12 사랑의교회(고정옥 목사)</p> <p>17-19 모리아교회(조선의 목사)</p> <p>24-28 선교지신학행여름세미나</p> <p>30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p><b>2017년 8월</b></p> <p>3 안양칼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p> <p>7-10 임미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p> <p>11 한양산기도원(이영근 원장)</p> <p>14-17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p> <p>21-24 김팔산기도원(이옥란 원장)</p> <p>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p>28-31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p><b>2017년 9월</b></p> <p>4-8 은누리복음화합의회수련회(임기호총재)</p> <p>11-14 교단총회</p> <p>18-21 종기교회(백현기 목사)</p> <p>2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p>25-27 비전교회(김경환 목사)</p>	<p><b>2017년 10월</b></p> <p>2-5 추석주간</p> <p>9-10 정기노회</p> <p>16-18 주사랑교회(조영욱 목사)</p> <p>2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p>30-4 인도사역지방문주간</p>	<p><b>2017년 11월</b></p> <p>5-8 주안중앙교회(박운송 목사)</p> <p>13-15 동계부흥성회(예복교회)</p> <p>19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p>20-22 열린중앙교회(신동훈 목사)</p> <p>27-1 필리핀 사역지 컨퍼런스</p>	<p><b>2017년 12월</b></p> <p>4-6 살롬교회(고정익)</p> <p>11-1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p>18-21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p> <p>26-29 송구영신을 위한 산상기도</p>	<p><b>2018년 2월</b></p> <p>5-8 김팔산기도원(이옥란 원장)</p> <p>11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p>12-17 설주간</p> <p>19-21 절충교회(김위수 목사)</p> <p>26-28 실목교회(조만희 목사)</p>	<p><b>2018년 3월</b></p> <p>1일 안양칼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 원장</p> <p>4일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p><b>3월은 불철 축복 대 심방의 달</b></p>	<p><b>2018년 4월</b></p> <p>1일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p>2일-4일 공평성경교회(조재웅 목사)</p> <p>9일-11일 산돌교회(한상길 목사)</p> <p>16일-20일 예복교회부흥회(소진우 목사)</p> <p>29일-3월 월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p>
---	---	--	---	---	---	---	---	---	---	---	---	--	--	---	---	--	--	--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 (장암동)

부활 "예수 다시 사셨네"

# 인천시온교회 부활절 세례식 거행

## 전국 각지에서 시온교회로... 세례 받는 놀라운 역사

대언(에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1:3절에서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기 때문이다". 계 2: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대언(에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1:3절에서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기 때문이다". 계 2: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듣고 읽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

들, 때를 아는 자들, 귀가 열린 자들, 이기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마치 사슴이 목이 갈하여 시냇물을 찾아 뛰듯이 인천시온교회로 몰려왔다. 그들은 이 시대에 영원한 진리인 생명의 말씀이 그리웠고,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싶었다. 마지막 때 전인구원의 확실한 진리에 목마른 자들로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66 시온장로교회 조영만 담임목사(한국기독교연분부흥사협의회 감사단장, 본지 상임이사)를 찾아왔다.

지난 4월 1일 부활주일 낮 예배를 이들과 함께 드리게 된 조영만 목사는 이날 특별한 세례식을 거행했다. 이날 세례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 사함과 의복다함을 주신 목적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위한 세례를 받고 성령세례 받은 성도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조영만 목사는 이번 부활주일을 맞아 세례식을 통해 전인구원의 믿음을 선

았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멀리 전라도 광주에서 또는 경기도 양주, 곤지암, 이천, 의정부, 태평, 성남, 김포, 안양, 안산, 서울, 인천 등지에서 9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전인구원의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았다. 지난해 추수감사절에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세례를 받기 위한 세례를 받고 성령세례 받은 성도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조영만 목사는 이번 부활주일을 맞아 세례식을 통해 전인구원의 믿음을 선



물론 받은 성도가 더 많이 나와서 오대양육대주를 향한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부활절연합예배, 이대로 좋은가?

부활절에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 지역이건 교단이든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드러진다. 한국교회 최초의 부활절연합예배는 1947년 4월 6일 서울 남산의 조선신궁 터에서 드러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조신)인 조선기독교연합회가 주한미군과 함께 개최했으며, 설교자는 한경직 목사였다.

이후 장로교의 분열로 1962년부터 부활절 연합예배는 진보파 보수측이 각각 따로 예배를 드렸다. 1973년 보수측이 진보측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부활절연합예배에 함께 하기로 하면서 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가 구성됐고 양측은 10여년만에 다시 모여 연합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가 상시조직으로 전환됐고, 하지만 부활절 연합예배의 주최권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면서 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가 해체됐다. 2006년부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매년 공동으로 번갈아 주관하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 하는 듯 했지만 결국 파행을 맞았다.

2018년 부활절 연합예배는 세곳을 주목하게 되었다. 먼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 31일 토요일 밤 11시에 '평화가 있기를'을 주제로 순례 형식의 예배로 드렸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시작한 곳에서 드린다는 일종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지역적으로는 부산지역 '연합' 예배는 '부활 생명, 이 땅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부산 시민공원에서 5만여명이 참석해 부활 신앙이 한국교회에 임할길 기도했다. '지역연합'이라는 '연합운동'의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이다. 또 한국교회총연합회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를 주제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드러졌다. 박상열목사의 "생명의 부활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백석대장총장의 설교로 이어졌다. 장 총장은 설교 서두에서 "엠마로 가던 무기행들 두 제자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시작했다.

"선교 130여년이 지난 지금 거룩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복음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진단하며, "세속화된 한국교회에 오직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외쳤다.

또 "한국교회는 십자가가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체험하는 영적지도자를 길러야 한다"며, "고상한 종교생활에서 가슴 신앙, 마음신앙, 무릎신앙이 될 때 울바로 설 수 있다"고 일갈 했다. 참석자들의 '아멘'이 터져 나왔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들에게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설교를 맺었다. 역시 장 총장은 한국교회의 열정있는

지도자이자 어린이였다. 순서에서 2018년 부활절 선언은 종교개혁 501주년과 선교 133년을 맞이한 한국교회의 선언이라고 발표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134년이다.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 133년이 맞지만 한국교회입장에서 보면 134년이 맞다. 발표된 선언문에서 '교회의 주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서 개혁자들의 전통과 순교신앙정신으로 거룩한 교회, 개혁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다'고 선언한 점은 개혁정신이 쇠퇴해지고 공교회성을 상실하는 지금의 교회 현실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부활절 연합예배, 이대로 좋은가 하는 자성은 항상 있어왔다. 그것은 한국교회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유일한 연합행사였다가 한기총, 한교연 내용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부활절예배는 이름대로 드려도 좋다. 그러나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오지는 않는지 말이다. 과거 부활절 준비를 위한 조직의 상설화가 가져왔던 폐단을 바로잡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부활절의 정신과 신앙을 다시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늘 부활절 연합예배는 결산이 제대로 안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금년 한교총의 경우 전액을 미혼모시설에 기증하기로 한 투명하게 마무리 한 것은 잘한 일로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같은 장소에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 드린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1만석에 8천여명이 참석했지만 금년 연합예배에는 '연합'정신이 절실한 때에 드러져 기대가 많은 탓인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 세밀하게 준비한 주최측 추산 1만 5천명이라고 하니 최소한 1만 2천여명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주최측이 준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예장대신(구, 백석)이 양대 축을 이루었지만, 구심점이 사라진 한국교회 현실에서 보면 나머지는 관망하던 교회가 한 축을 이루며 참석했다는 점이다. 그래도 연합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회복하려는 몸부림에 화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연합'이라는 이름에 그래도 교회버스로 참석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서 '연합'의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연합'이 필요함은 분열되고 개 교회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에서 주님이 당부하신 '하나님'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효상 원장 (한국교회건강연구원)

# 누구를 위한 방송들인가?

언론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맛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과 같다

최근 한국의 방송사들을 보면, 편파/왜곡을 떠나,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참으로 애처롭다는 생각이 든다.

3월 28일 공영방송이자, 국가재난방송인 KBS는 (추적60분)을 통해, 8년 전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 문제를 거론하는 "8년 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천안함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다.

8년 전에도 (추적60분)을 통해,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식으로 방송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편파 왜곡 보도'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는 정권이 바뀌자, 같은 시도를 한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때 당시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전파남비이며, 국민들이 낸 시청료에서 지원받는 공영방송의 후안무치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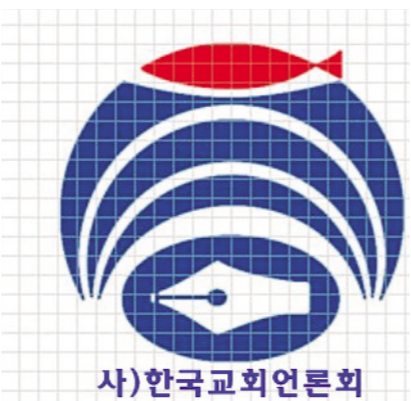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국방부에서도 이를 반박했는데, 2010년 당시, 민

/관/군 합동조사단 70~80명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의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16일간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었음이 밝혀진 것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KBS 공영노조는 성명서를 통하여, 이 방송물을 평가하기를,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다...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의 기조로 흘렸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KBS 예산을,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하는 특정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를 도와주는 방송에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고 개탄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한국 언론이 이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아예 방송의 간판을 바꾸든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한다. KBS는 국민들과 시청자들에게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당사자들을 문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공영방송 MBC에서는 노조 출신이 사장으로 바뀐 가운데, 지난 2012년 MBC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기자 및 직원 등 140여명에게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하고, 심지어는 직원들의 이-메일을 본인 동의 없이



열어보는 등의 행태가 벌어져,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다.

소위 '블랙리스트'로 방송 권력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이미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점과 신뢰는 땅에 떨어졌지만, 한국의 대표적 언론들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정문을 펼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보도하고, 권력과 밀착하여 정권의 시녀가 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는 망정,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끄러움만 주

는 언론들이 왜 필요한 것인가?

언론이 권력의 종이 되는 한, 언론도 망하고, 권력도 부패하고, 나라의 미래도 암담해지는 것을 왜 모르는가?

그런가하면, SBS방송은 지난 27일 (8시 뉴스)에서 '전 세계 미세먼지 농도'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된 것을 그대로 방송에 사용하였다. 이 방송은 한국방송인가, 일본 방송인가? 물론 사과방송을 했지만, 이미 모든 방송이 나간 뒤여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구기게 하였다.

jbc도 같은 실수를 하였다. 물론 사과하였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뭔가? 방송은 아무리 잘못해도 사과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제는 언론들이 국민들을 속이거나, 계도(啓導)하려고 해서 안 된다. 언론이 먼저 깨어나고, 공정하고, 바르고, 정확하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방송을 하고, 국민과 시청자 무시 행위를 금해야 한다.

언론들이 적폐 청산에 앞장선듯 하면서, 자신들은 적폐를 만들어 간다면, 그 언론을 누가 신뢰하고 인정하려 하겠는가? 지금 우리 언론들은 유신시대 정부에 편향되게 보도하던, 그 언론들과 무엇이 다른가 묻고 싶다.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총회 2018. 부활절

**총회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증경총회장**



윤석철 박사 (천복교회)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 (서울소망교회)

##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전15:3)'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회의록부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김영국 목사 (양지중앙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복지교회)	주지광 목사 (사천대곡교회)	서재식 목사 (풍성산교회)	김상대 목사 (반석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정수 장로 (천복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총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동천교회)

H.P 010-7474-3173, 02)854-1326, FAX 496-018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교단은 주안에서 뜻을 같이할 교회와 기관, 교단 가입을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